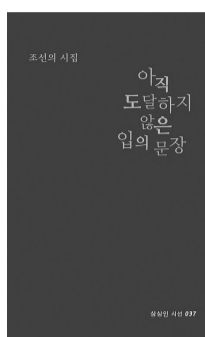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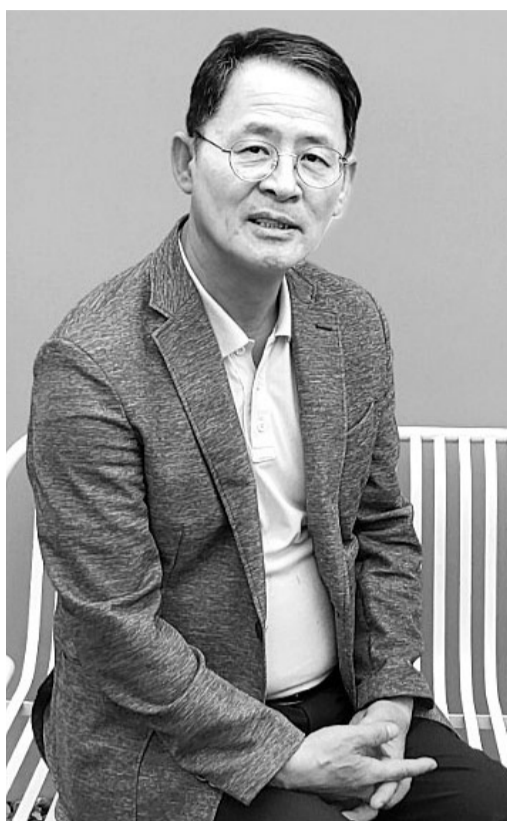
# “詩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조선의 시인, 네번째 시집 발간  
‘시 꽃피다’ 활동·강연 등 병행  
“하루라도 시 쓰지 않으면 힘들어”

“저는 늘 저를 찾아 방향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가장 모르는 것  
이나 자신인 것 같아요. 밖  
으로 떠도는 자아와의 끝  
없는 대화를 통해 화해하  
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조선의 시인이 시를 쓰  
는 이유다. 시는 자아와의  
대화를 하는 데 가장 유효  
하고 의미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는 오늘도  
‘나’를 찾아 자신만의 여행을 떠난다. 그것이 특정  
공간을 향한 외적인 여행이든, 자신의 내면을 향  
해 침잠해 들어가는 속 깊은 대화이든, 그것은 모  
두 시를 쓰기 위한 여정이다.



조선의 시인

조선의 시인이 네 번째 시집 ‘아직 도달하지 않  
은 입의 문장’(상상인)을 펴냈다.

조 시인은 언제나 부지런히 쓰고 강의하고 새로  
운 작품을 모색한다. 오랫동안 소식을 없었기에  
창작을 위한 고투를 하고 있다 보다 생각했다. 그  
는 진지한 듯 윤택하고, 명랑한 듯 조용한 면이 있  
다. 내면 깊은 곳에 단단한 ‘뿌리’가 있는데, 시를  
창작하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으로 보이곤 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위해 변명도 해보고 강변도  
해보지만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언제부  
턴가 나와 거리를 두고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기억과 합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  
도 있는 나를 성찰하는 일이 어쩌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시 창작 강의를 다닌다. ‘시꽃  
피다’를 지역별로 조직하고 있는데 광주를 비롯해  
서울, 대전 등 모두 일곱 군데가 결정돼 있다. “기  
성 시인이 아닌 사람도 시를 써서 나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사회를 밝혀보자”는 취지에서 ‘시꽃피  
다’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창작 강의를 가는 곳마다 수강생들에게 시  
쓰기 숙제를 내준다. “수강생들에게 숙제를 내주  
듯 저에게도 시 쓰는 과제를 내준다”며 웃었다.

이번 시집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이라  
는 제목이 그의 창작에 대한 열망을 집약하게 한  
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도달  
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으로 ‘자신만의 문장’을 향해 시인이 부단히 정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이번 작품들은 어떤 부분에 많은 주안점을 뒀  
나’는 물음에 조 시인은 “생명에 대한 예의이며 존  
중”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생명을 동식물 모두  
를 아우른다. “타협하지 못한 이해관계들에 대해  
기억의 편린을 더듬어 봤다”는 그는 구체적으로  
“집목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언어로 형

상화했다”고 덧붙였다.  
“때로는 질문과 침묵이라는 두 개의 축이 한데  
섞여 원치 않는 일을 자초하기도 하지요. 불시착  
하는 생각들에서 나를 건져야 한다는 강박이 밀려  
올 때도 있고요. 그럴수록 절정의 비명은 커진다  
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집에서 가장 아끼는 시는 예상했던 대  
로 표제시였다. “언어에는 미분된 현재가 묘파되  
어 있다/ 달아나는 시간의 꼬리를 붙잡고도 나는  
과거의 습관을 따랐다// 발성을 거부한 침묵이 내  
면의 망각을 조장하고/ 그것들이 사소한 슬픔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나는 발랄의 형식으로 언어를  
축약한다...”

작품은 완성이 아닌,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조점화한다. 그에 따르면 “도달하지 않는 방식으  
로 도달하는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시를 창작하기 이전에 언론사에서 오래 근  
무했다. 당시에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 꽃과 원예  
공부를 많이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신춘문에 데  
뷔 후 시장장의 길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이전의  
많은 경험은 지금의 창작과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된  
다. 가끔 ‘꽃과 시와 인생’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하  
기도 한다.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즐거움 생활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의 ‘하루  
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비유했다.

“저는 단 하루라도 시를 쓰지 않으면 몸이 힘들  
어요. 그렇다고 매년 완성도가 높은 시를 쓰는 것  
은 아닙니다. 달리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 주위  
를 보기도 하고 나를 살피지만 언제나 올바른 판단  
은 내일로 유보되지요. 시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길이기도 하구요.”

그는 앞으로도 일상의 느낌을 고스란히 언어로  
풀어내고 싶다. 느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존  
재와 존재의 관계를 의미있게 들여다보는 창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의 시인은 ‘당신 반칙이야’, ‘꽃으로  
오는 소리’, ‘반대편으로 창문 열기’ 등의 작품집  
을 펴냈으며 신석정문학박사, 송순문학사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정시, 노래가 되다

음악나무숲, 31일~9월12일 ‘기현수의 아름다운 창작 콩 음악회’



지난 음악회에서 포크기타를 연주하는 기현수씨의 모습. (기현수 제공)

서정시와 노래를 융합한 공연이 8월의 마지막  
날 관객을 찾아온다.

(사)음악나무숲이 ‘기현수의 아름다운 창작 콩  
음악회’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총 6  
회에 걸쳐 연다. 이번 음악회의 이름은 기씨의 부  
친이 어린 시절부터 ‘콩 한조각도 나누며 살라’는  
조언에서 본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  
획했다.

기씨는 MBC 대학가요제에서 ‘마지막 잎새’로  
입상했으며, 시와 노래를 접목한 음악치유 가수로  
활동 중이다.

시와 노래를 융합한 기씨의 ‘The Poem Sketch  
' 음반에 수록된 곡들이 레퍼토리에 있다. 서정시의  
대가 나태주 시인의 ‘내가 너를 부터 피전득의 ‘오  
월’, 김춘수의 ‘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슈베르트의 ‘보리수’와 ‘송아’를 포크송 버전  
으로 연주한다. 건반에 장호중, 클라리넷 이정석

이, 보컬에 이미랑.

한편 이번 사업은 2023년 광주문화재단 기부금  
매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소외계층  
인 암 요양원, 장애시설 등지를 찾아가 노래를 선  
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는 31일(오후 7시)에는 실로암 사람들. 다음  
달 6일(오전 11시)에는 길벗, 프리지아. 6일(오  
후 5시)에는 별밭공동체 등지에서 무대에 오른  
다. 이어 7일에는 나주 실버케어타운, 11일은 즐  
거움 집, 12일은 전남제일요양병원 등지에서 무대  
를 펼칠 예정이다. (오전 11시)

기씨는 “문화메세나 사업을 통해 기획공연을 진  
행하는 만큼,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시민들  
께서 공연을 향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장소 및 일정은 문의(010-3616-1173)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판소리 ‘춘향가’ 속 사랑 이야기

시립창극단, 광주공연마루서 내일 판소리 감상회

판소리 ‘춘향가’에 녹아있는 사랑 이야기를 감  
상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규형)은 2023년 특  
별공연 ‘판소리 감상회’를 오는 30일(오후 3시) 광  
주공연마루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몽룡과 백년가  
약을 맺었다가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옥고를 치르  
는 것으로 잘 알려진 춘향가의 서사를 다룬다.

춘향가 중 ‘박석고개 대목’부터 후반부의 ‘눈대  
목’ 위주로 감상할 수 있다. 한국전통예술진흥회  
군산시지회장이자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동초  
제 이수자 기성희 명창이 소리를 맡는다. 여기에  
김규형 예술감독이 고수로 직접 무대에 올라 소리  
를 곁들일 예정이다.

해설은 윤성강 국악 평론가가 맡는다. 윤씨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동경예술대 대학원  
에서 음악연구를 전공했다.



기성희 명창

김규형 고수

한편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10월 25일과 11월 29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전석 무료.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팅  
크에서 예매. 자세한 내용은 시립창극단 문의.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김경천 장군 항일애국정신 계승

고려인문화관, 내일 기념세미나... ‘경천아일록’ 영인본 발간

김경천 장군은 연해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  
개했던 전설적인 항일의병장이다. 그는 항일전투  
에 임할 때마다 뛰어난 전략과 통솔력으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연해주 일대에서 ‘백마 탄 김  
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경천 장군의 항일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특별전 및 기념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30일 오후  
2시 고려인커뮤니티센터.

‘김경천 장군의 항일애국정신 계승방안’을 주제  
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월곡고려인문화관 경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김순홍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전 광주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이준식 전 독  
립기념관장이 ‘신흥무관학교와 남만삼천’을 주제  
로 발제를 한다.

이어 김경천 증손녀인 김을가가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김경천을 사례로’,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이 ‘경천아일록과 김경천의  
생애’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경천 장군이 쓴 ‘경천아일록’(고려  
인마을출판사)이 영인본으로 출간됐다. 고려인마  
에 따르면 ‘경천아일록’은 장군이 걸어온 행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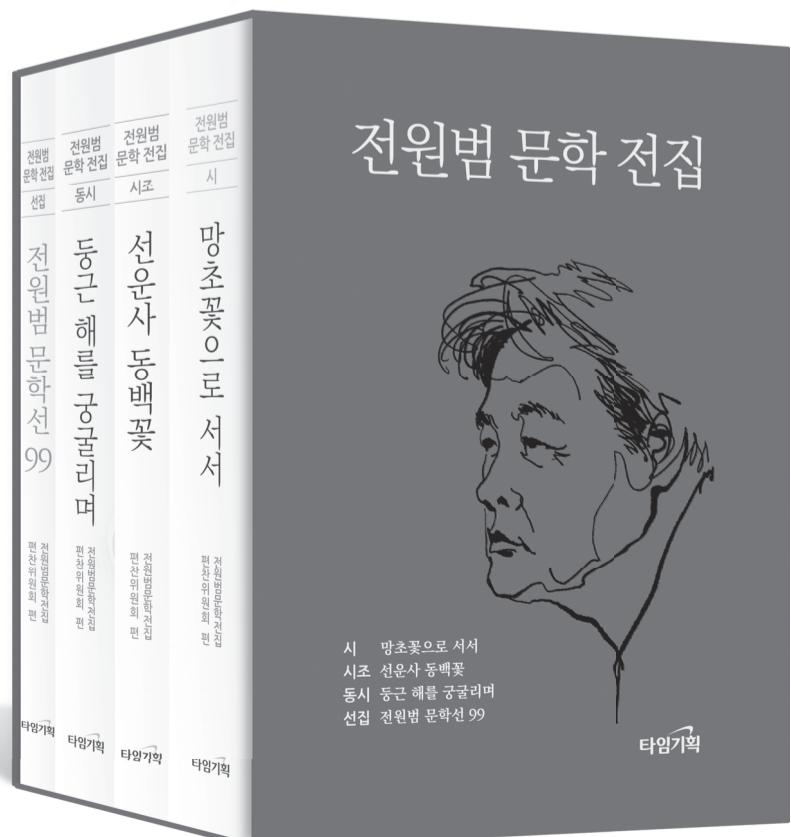
원대한 뜻을 담고 있다. 김경천 장군의 일기 ‘경천  
아일록’은 1936년 김 장군이 스탈린 정권의 탄압  
을 받아 수감될 때 소련 당국에 압수되었다가  
2005년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경천 장군  
은 지난 199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이번 영인본 출간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장 김순홍 교수가 출판비를 지원하면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2019년  
김 장군의 일기를 김병학 고려인문화관이 국내  
최초로 현대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한 바  
있다.

한편 김병학 관장은 “특별전과 기념세미나를 계  
기로 우리 조상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흘렸던 피  
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물론 숭고한 항일 애국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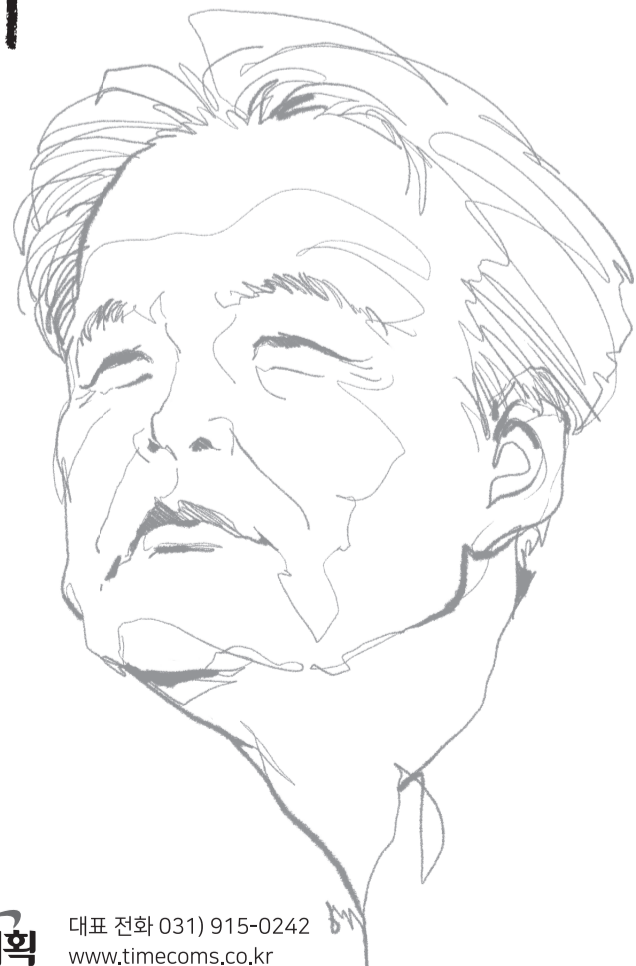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류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